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253>

JCCT 2024-5-30

## 한의대생의 교육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Korean Medical Students' Satisfaction with Education

한예진\*

Yejin Han\*

**요약** 본 연구는 한의대생의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고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총 372명의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영역별 교육 만족도, 집단에 따른 교육 만족도 차이,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교육과정, 교수자, 교육평가, 교육환경, 교육전체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평균적으로 '보통'과 '만족' 사이에 위치하였다. 또한, 성별과 유급경험에 따라 교육전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교육전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의대생의 교육 만족도를 다양한 영역과 도구를 통해 조사하고,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대상을 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한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혀 추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 인터뷰를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양적 자료를 보완하는 등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교육 만족도, 요구조사, 한의대생, 한의학교육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Korean medical students' satisfaction with education and examin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with education. Based on a total of 372 survey responses, we analyzed the satisfaction with education by sectors, differences in the satisfaction with education between groups, and variables affecting the satisfaction with educ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atisfaction with curriculum, instructors, evaluation, environment and overall education were all between 'neutral' and 'satisfied.'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overall satisfaction by gender and dropout experience, and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overall satisfaction were curriculum, evaluation, and environ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nvestigated Korean medical students' satisfaction with education through the sophisticated measurements in various sectors, and suggested specific improvement strategies to increase educational satisfaction.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results cannot be generalized because the study was limited to students at one university, 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further research to represent the popula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llect and analyze data from various aspects, such as collecting qualitative data through student interviews to complement the quantitative data, so as to fully understand learners' need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encourage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earch for improving Korean medicine education.

**Key words** : Educational Satisfaction, Needs Assessment, Korean Medical Student, Korean Medicine Education

\*정회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교육실 연구교수  
접수일: 2024년 3월 6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9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5일

Received: March 6, 2024 / Revised: April 19, 2024

Accepted: April 25, 2024

\*Corresponding Author: yejin2@wku.ac.kr

Dept.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Wonkwang Univ, Korea

## I. 서 론

현대 사회가 변화하면서 한의학교육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의학 분야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양방과 한방의 협진, 의료일원화 등에 대한 이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1], 한의학에 현대 의학 지식의 적용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거 중심 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이 강조됨에 따라 한의계에도 과학적 근거와 설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초와 임상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 실습을 통한 임상 수행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 등이 나타나고 있다[2].

이에 따라 한의학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기존 한의학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25(Korean medicine educ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2021, KAS2021)’을 공표하였다[2]. KAS2021은 양질의 한의학인력 양성을 위해 한의학교육기관이 교육여건과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흥미, 요구, 활동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피드백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한의학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대상자인 한의대생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대학 교육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 볼 수 있고, 의학교육 평가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3][4]. 대학의 교육을 실제로 경험한 학생들에 대한 인식 조사는 대학의 교육 기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내실화와 개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3][5].

이를 위해 한의대생의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는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권상우의 연구[3]에서는 교육 전반, 교육과정, 교수자, 강의 및 실습, 평가, 학생활동,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집단 간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정성현의 연구[2]에서는 앞선 권상우의 연구[3]와 비슷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추가로 교과목별(기초의학과목, 기초한의학과목, 임상과목, 인문사회의학) 만족도, 필요성, 시수확대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성준의 연구[1]에서는 교육과정 측면에서 전반 만족도, 불만족 사유, 양방과목

과 한방과목의 비중에 대한 인식, 한의대 진학 추천 여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박영규의 연구[6]에서는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전반 만족도, 전공과목 이해도 및 난이도, 전공과목 간 내용 중복 및 연계성, 문제중심학습(PBL)의 필요성, 한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도 한의학교육의 개선을 위해 한의대생의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고,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한의대생의 교육 만족도를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영역별(교육과정, 교수자, 교육평가, 교육환경)로 교육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다양화하고 세밀화하였다. 또한, 집단별 교육 만족도 차이 검증에서 나아가 영역별(교육과정, 교수자, 교육평가, 교육환경) 차원에서 교육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교육전체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의대생의 특성과 영역별 교육 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집단에 따라 교육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전북지역 W대학교 한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히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은 총 372명이었다. 설문지는 선행연구[1][2][3][6]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1) 응답자 기본 특성, 2) 교육과정 만족도, 3) 교수자 만족도, 4) 교육평가 만족도, 5) 교육환경 만족도, 6) 교육전체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기본 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한의대진학결정시기, 타학교경험, 학점, 유급경험, 주거형태, 진로, 교육목표인지를 묻는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과정 만족도’는 교과목별(기초한의학, 기초의과학, 인문사회의학, 임상의학)의 내용, 방법, 과목 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수자 만족도’는 전체 교수 수와 교과목별 교수 수에 대한 만족도, 교수자전문성, 교수자피드백, 교수자학업면담, 교수

자학생관심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평가 만족도’는 평가방법, 평가횟수, 평가피드백, 세부평가방법(정기시험, CBT, 쪽지시험, 과제, 발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환경 만족도’는 시설(교육시설, 편의시설 등), 비교과활동, 학생자치활동, 행정지원, 교우관계를 묻는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전체 만족도’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발한 설문지는 한의학교육 전문가 5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0을 활용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통해 연구대상자 특성의 빈도와 비율을 구하였으며, 영역별 교육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ANOVA(Analysis of Variance)을 통해 집단에 따른 교육전체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교육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 특성과 영역별 교육 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은 202명(54.3%), 여성은 170명(45.7%)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만 22.8세였으며, 예과1학년이 76명(20.4%), 예과2학년이 93명(25.0%), 본과1학년이 85명(22.8%), 본과2학년이 78명(21.0%), 본과3학년이 12명(3.2%), 본과4학년이 28명(7.5%)이었다. 한의대 진학 결정을 고3 이전에 한 학생이 108명(29.0%), 고3 중에 한 학생이 59명(15.9%), 수능 이후에 한 학생이 136명(36.6%), 타대 재학 중 또는 사회생활 중에 한 학생이 69명(18.5%)이었다. 타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240명(64.5%),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2명(35.5%)이었다.

학점을 기준으로 2.5 미만이 19명(5.1%), 2.5 이상 3.0 미만이 82명(22.0%), 3.0 이상 3.5 미만이 118명(31.7%), 3.5 이상 4.0 이하가 153명(41.1%)이었다. 유급경험이 없는 학생이 350명(94.1%), 유급경험이 있는 학생은 22명(5.9%)이었다. 주거형태를 기준으로 가족과 함께 사는 학생이 32명(8.6%), 기숙사에 사는 학생이 34명(9.1%), 자취 또는 하숙을 하는 학생이 306명(82.3%)이었다. 희망하는 진로는 개원의가 183명(49.2%), 봉직의

가 153명(41.1%), 대학교수가 18명(4.8%), 연구자가 8명(2.2%), 기타가 10명(2.7%)이었다. 마지막으로 한의대의 교육목표를 모르고 있는 학생이 161명(43.3%), 알고 있는 학생이 211명(56.7%)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72)

구분	구분		N(%)
	남자	여자	
성별	남자	202(54.3)	
	여자	170(45.7)	
학년	예과1학년	76(20.4)	
	예과2학년	93(25.0)	
	본과1학년	85(22.8)	
	본과2학년	78(21.0)	
	본과3학년	12(3.2)	
	본과4학년	28(7.5)	
한의대진학 결정시기	고3 전	108(29.0)	
	고3 중	59(15.9)	
	수능 이후	136(36.6)	
	타대 재학 중 또는 사회생활 중	69(18.5)	
타학교경험	없음	240(64.5)	
	있음	132(35.5)	
학점	2.5 미만	19(5.1)	
	2.5 이상 3.0 미만	82(22.0)	
	3.0 이상 3.5 미만	118(31.7)	
	3.5 이상 4.0 이하	153(41.1)	
유급경험	없음	350(94.1)	
	있음	22(5.9)	
주거형태	가족과 동거	32(8.6)	
	기숙사	34(9.1)	
	자취 또는 하숙	306(82.3)	
진로	개원의	183(49.2)	
	봉직의	153(41.1)	
	대학교수	18(4.8)	
	연구자	8(2.2)	
	기타	10(2.7)	
교육목표인지	모르고 있음	161(43.3)	
	알고 있음	211(56.7)	

영역별 교육 만족도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교육내용, 방법, 과목수와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3.45(.60), 교수자의 수, 전문성, 학생관심과 같은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는 3.08(.51), 평가방법, 평가횟수, 평가피드백과 같은 교육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3.34(.55), 시설, 자치활동, 행정

지원과 같은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41(.65), 교육전체 만족도는 3.47(.83)이었다. 전반적으로 3점과 4점 사이에 평균값이 분포하였으며, 교육전체 만족도,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환경 만족도, 교육평가 만족도, 교수자 만족도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영역별 교육 만족도  
Table 2. Satisfaction with education by sectors

구분	M(SD)
교육과정 만족도	3.45(.60)
교수자 만족도	3.08(.51)
교육평가 만족도	3.34(.55)
교육환경 만족도	3.41(.65)
교육전체 만족도	3.47(.83)

2. 집단에 따른 교육 만족도 차이

집단에 따라 교육전체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Table 3). 성별과 유급경험에 따라 교육전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 한의대진학결정시기, 타학교경험, 학점, 주거형태, 진로, 교육목표인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의 측면에서, 여학생의 만족도 평균이 3.64(.74)로 남학생의 만족도 평균 3.32(.87)보다 높은 것

표 3. 집단에 따른 교육전체 만족도 차이  
Table 3. Overall satisfaction with education by group

구분		M	SD	t	p
성별	남자	3.32	.87	-3.883	.000
	여자	3.64	.74		
유급경험	없음	3.49	.81	2.466	.014
	있음	3.05	1.00		

표 4. 교육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Table 4. Variables affecting overall satisfaction with education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TOL	VIF
	B	SE	$\beta$				
(상수)	-.427	.240		-1.782	.076		
교육과정 만족도	.457	.069	.328	6.662	.000	.611	1.637
교수자 만족도	.112	.078	.069	1.443	.150	.640	1.564
교육평가 만족도	.191	.077	.127	2.472	.014	.566	1.767
교육환경 만족도	.391	.066	.307	5.895	.000	.548	1.826
R = .675, R <sup>2</sup> = .456, adj.R <sup>2</sup> = .450, F = 76.897, p = .000, Durbin-Watson = 1.899							

으로 나타났다. 유급경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급경험이 없는 학생의 만족도 평균이 3.49(.81)로 유급경험이 있는 학생의 만족도 평균인 3.05(1.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교육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분석 결과, F=76.897(p=.000)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adj.R<sup>2</sup>=0.450으로 45.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평가 만족도, 교육환경 만족도가 교육전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으며, 교수자 만족도는 교육전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만족도가 1 증가하면 교육전체 만족도가 0.328 증가하며, 교육평가 만족도가 1 증가하면 교육전체 만족도가 0.127 증가하며, 교육환경 만족도가 1 증가하면 교육전체 만족도가 0.3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환경 만족도, 교육평가 만족도 순으로 값이 크게 나타났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한의대생의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집단별 교육전체 만족도의 차이와 교육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별 교육 만족도는 모두 3점과 4점 사이에 평균값이 분포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교수자, 교육평가, 교육환경, 교육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평균적으로 '보통'과 '만족' 사이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교육전체,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평가, 교수자 순으로 더 높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육전체,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비슷한 반면, 교수자 만족도는 다른 영역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에 따라 교육전체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별과 유급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육에 더 만족하고 있었으며, 유급경험이 없는 학생이 유급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교육에 더 만족하고 있었다. 이는 남학생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학생들이 유급을 경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학년, 한의대진학결정시기, 타학교경험, 학점, 주거형태, 진로, 교육목표인지에 따라서는 교육전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유급경험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유급을 경험하지 않도록 학생의 유급을 조기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학생의 이탈(drop-out)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학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수(completion)나 성취(performance)를 예측하는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을 실시하고 있다[7]. 이러한 예측 시스템을 통해 유급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발견하고, 유급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권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부정적인 예측으로 인해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한 결과,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 교수자 만족

도는 교육전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교육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수자 측면보다는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환경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의 표준화 회귀계수값이 교육평가보다 높았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적으로 개선한다면 교육전체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교육전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평가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실제적인 요구(needs)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교과목별(기초의학, 기초의과학, 인문사회의학, 임상의학 등) 혹은 학년별(예과부터 본과까지)로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2]. 교육환경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리적인 공간 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학생자치 활동, 행정서비스 등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8]. 교육평가의 측면에서는 학습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뿐만 아니라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혹은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가 될 수 있도록 하며[9], 평가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이 양적 및 질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10].

위와 같은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요구를 교육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교수자, 교육평가, 교육환경 등에 대해 학습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를 마련하고, 학생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피드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11]. 이때 중요한 교육 이해 관계자인 교수자, 관리자 등의 의견 또한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학습자, 교수자, 관리자 등이 공동으로 의견을 논의하는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12]. 이를 통해 수동적인 교육 객체들로 교육 시스템이 구성되는 것이 아닌, 능동적인 교육 주체들이 협력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13].

## V. 결 론

본 연구는 한의학교육의 개선을 위해 한의대생의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고,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총 372명의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영역별 교육 만족도, 집단에 따른 교육 만족도 차이,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교육과정, 교수자, 교육평가, 교육환경, 교육전체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평균적으로 '보통'과 '만족' 사이에 위치하였다. 또한, 성별과 유급경험에 따라 교육전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교육전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의대생의 교육 만족도를 다양한 영역과 도구를 통해 조사하고,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대상을 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한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혀 추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 인터뷰를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양적 자료를 보완하는 등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습자의 인식과 요구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S.J. Joo, D.M. Eom, and J.H. Song, "A Research for Recognitions of Korean Medical Student towar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Education,"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ol. 20, No. 3, pp. 1-8, 2016.
- [2] S.H. Jeong, J.-P. Kim, Y.-J. Kang, H.I. Jeong, and K.H. Kim, "A Survey of Recognitions and Satisfaction with Educa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ol. 24, No. 3, pp. 49-56, 2020. <https://doi.org/10.25153/spkom.2020.24.3.005>
- [3] S.W. Kwon, S.W. Shin, and B.M. Lim, "A Survey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Educa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Journal of Society of Korean Oriental Medicine*, Vol. 33, No. 1, pp. 1-11, 2012.
- [4] M. Foldevi, "Undergraduate medical students' ra-

- ting of clerkship in general practice," *Family Practice*, Vol. 12, pp. 207-213, 1995.
- [5] B.D. Ruben, "Quality in higher education," New Brunswick(NJ): Transaction Publishers, 1995.
- [6] Y.K. Park and K.S. Lim,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Korean Medicine Students' curriculum of Korean Medicine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Medicine Society For The Herbal Formula Study*, Vol. 29, No. 4, pp. 253-266, 2021. <https://doi.org/10.14374/HFS.2021.29.4.253>
- [7] K.H. Nam, "An Analysis of Educational Capacity Prediction according to Pre-survey of Satisfaction using Random Forest,"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6, pp. 487-492, 2022.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487>
- [8] G.Y. Jo and H.G. Kang, "A Study on Measures to Increase Student Enrollment in Community Colleges: Based on the Case of G Colleg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10, No. 4, pp. 137-147, 2022. <https://doi.org/10.17703/IJACT.2022.10.4.137>
- [9] L.M. Earl, "Assessment as learning (2nd Ed)". Thousands Oaks, CA: Corwin Press, 2013.
- [10] H.J. Lee, "Dynamization measure of feedback structure for improving learner's particip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5, No. 3, pp. 377-400, 2015.
- [11] J.S. Yu and D.P. Kim, "Linking university-wide key competencies and discipline specific major competencies for designing competency-based major curricula in Korean higher educ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15, pp. 189-210, 2022.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5.189>
- [12] R.S. Caffarella & S.R. Daffron, "Planning Programs for Adult Learners: A Practical Guid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13.
- [13] H.G. Jo, "The Changes of Higher Education and the Tasks of Gener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1, No. 2, pp. 53-89, 2017.